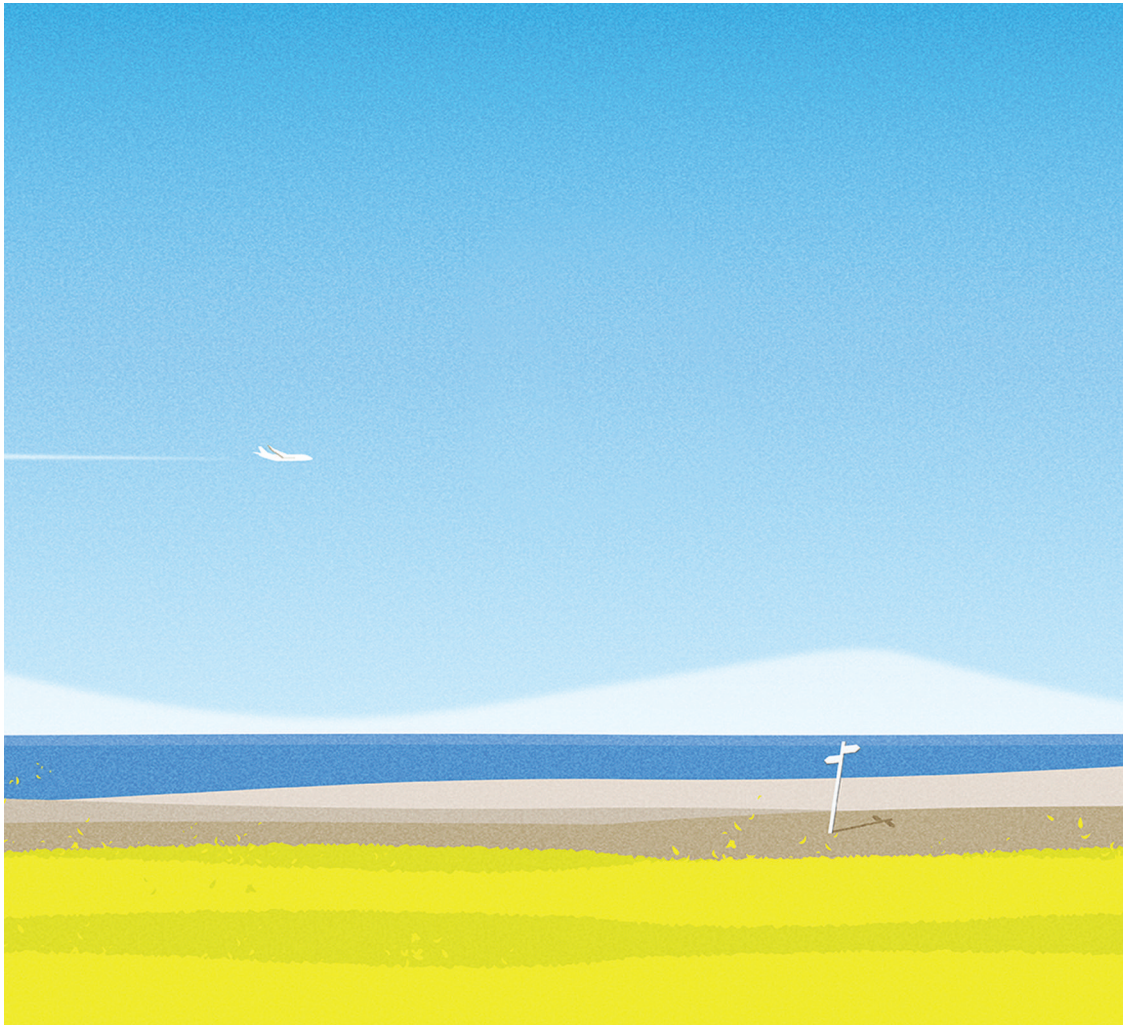


Youngeun News

동행

3월

2025년 463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은교회
www.youngeun.or.kr

color 2025 영은, 색을 입히다



“뛰어 오르다”

영어로 봄은 Spring 입니다.
‘뛰어 오른다’ 는 뜻이지요.

24절기 중 하나인 경칩(驚蟄)은
‘겨울잠을 자던 벌레 개구리 등이 땅 속에서 깨어 난다’ 는 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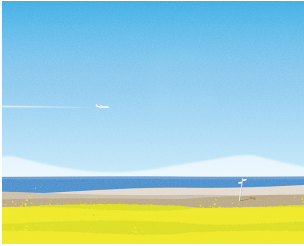
만물이 깨어나는 이 계절.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다시 깨어 뛰어오르게 한다면
내 인생 최고의 봄이 되지 않을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지요 달음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31) **동행**

〈글 · 사진 : 서현이 기자〉

영은교회 창립 주후 1960. 04. 24



월간 동행 영은 홍보부

1984년 4월 27일 창간

발행일 제463호 / 2025. 3. 2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61 영은교회

전화. 02-2676-7171~2

월간 동행 E-mail. yemagazine@naver.com

발행인 이승구 목사

지도목사 최광주 목사

편집인 김석진 장로

편집차장 김창원 안수집사

서선이 권사

편집 서선이 김경원B 윤정림

기자 김명희C 서현이 이숙경

사진기자 허영준

디자인 디자인 샘

월간 동행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삶과
간증을 나누는 교회 소식지입니다.

2025년 「월간 동행」 사역자 모집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생생한 글과 사진으로
남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월간 동행과 함께 동역하실
사역자를 기다립니다.

CONTENTS

02 그림이 있는 풍경

“뛰어오르다” / 서현이 기자

04 생명의 말씀

전도의 정석, 씨 뿌리기 / 이승구 담임목사

07 믿고 알고 알고 믿고

사순절이란? / 김영락 전도사(고등부)

08 동행

성경 속에 나타난 찬양대 / 박대원 목사

10 신앙의 유산

신앙의 정석을 걸어온 '정장 장로님' / 경흥국 은퇴장로

12 웹진 동행

선교지에서 온 감사글 / 안영순 권사(2024년 권사회 회장)

제65회 여전도협의회 정기총회를 마치며 / 송도숙 권사

「영은 그랜드 투어」, 교회에 색을 입히다 / 교육문화부

15 영은 소식

청년부 부산 전도여행 / 강현우 (청년부)

청년부 부산 전도여행 / 최안진 (청년부)

아동부 찬양학교 / 최유하 (소년부 6학년)

영아부 겨울성경학교 - 부름부름 예수님을 따라가요 / 이상화 집사

유아부 겨울성경학교 - 기도의 히어로 / 이정섭 교사

유치부 겨울성경학교 - “바르게 믿어요” / 김혜령 교사

소년부 겨울성경학교 - 하나님과 우리의 동행 / 안소울 어린이

중등부 겨울성경학교 -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

서아영 학생

고등부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는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성장시킬

기회 / 김하영 학생

24 선교지 소식

인도하심 / 신국진·안윤정 선교사

초등부 정희수 전도사 부임인사

26 슬기로운 교회생활

대표기도, 이렇게 하세요 / 박대원 목사

27 빼딱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정말 기적인가 / 이숙경 기자

24 교회안내

남녀선교연합3·1절 기념예배 만세삼창 / 허영준 기자

「월간 동행」에서는 성도님들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영은 성도들과 함께 나누거나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으면

월간 동행 이메일(yemagazine@naver.com)로 사진과 함께
보내주세요.

편집회의 검토한 후 월간 동행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의 정석, 씨 뿌리기

(시편 126:6)



글 | 이승구 담임목사

“교회 용어 중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으면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라고 답할 것입니다. 솔직히 목사인 저에게도 전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정성껏 섬기며 복음을 전해도 번번이 거절당하고, 전도 세미나에도 참석해 보지만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전도의 정석은 무엇일까요?

1) 씨 뿌리는 자가 되라

마가복음 4장의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다양한 태도를 설명합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순식간에 싹을 틔웠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탓에 햇볕이 내리쬐자마자 시들어 버렸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싹을 틔우자마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으므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땅에 떨어져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열매를 맺는 씨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뿌린 씨 중 일부는 분명 좋은 땅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전도자들에게 많은 용기를 주

니다. 전도의 씨를 뿌리다 보면 냉소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쁜 땅에만 씨를 뿌리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너희의 수고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한 영혼이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 가라! 당장 가서 나를 증거해라! 씨를 뿌려라!”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바보가 되라! 바보처럼 우직하게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날이 올 것이다.”

사도행전 24장에서 바울은 총독 벨릭스 앞에서 고발당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을 스스로 변호합니다. 바울은 총독을 2년 동안 개인적으로 만나 자주 대화했습니다(행 24:26~27). 2년이나 투자했지만 성경 어디에도 총독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벨릭스와 보낸 시간은 낭비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 또한 바울에게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없으며, 언제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모르고, 씨를 뿌려온 지난 시간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의 정석입니다.

2)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계속해서 씨를 뿌릴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고전 2:1)

바울은 당시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헬라 철학에도 능할 뿐 아니라 탁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가 복음을 전할 때는 논리와 철학과 지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전도는 설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왜 전도를 못 하는지 물으면, 아직 잘 몰라서, 능력이 나 적성에 안 맞는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의 바탕에는 ‘자기 힘으로 설득하는 것’이 전도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 왕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하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 하였음이라”(고전 2:2)

바울이 한 것처럼 전도할 때 나의 말과 지혜로 설득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전해야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고전2:4)”라는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되는 것임을 잘 알았기에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기도에서 승리한 사람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의 정석입니다.

3) 전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씨를 뿌릴 때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의 의미를 알고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고전 3:6~7)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전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으며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과정이 혼자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두는 것만이 아니라 씨 뿌리고 물 주고, 거두는 모든 과정이 전도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샀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요 4:36~37)

전도는 열심히 씨를 뿌리든지, 아니면 열심히 물을 주든지, 누군가가 뿌려놓은 씨를 거두든지 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내가 뿌려서 거두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거두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뿌린 것을 내가 거두게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러한 전도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전 3:8)

그 믿음이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합니다. 이것이 전도의 정석입니다.

전도는 복음의 씨를 계속해서 뿌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씨가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씨를 계속해서 뿌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씨 뿌리는 자, 물 주는 자, 거두는 자 모두의 종합예술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시 126:6)

가뭄에 콩 나듯 하긴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뿌린 씨와 옥토가 만나는 신비로운 현장을 경험합니다. 이는 우리가 전도에 대해 정교하게 짠 계획 때문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검증된 최고의 전도공식 덕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과연 싹이 틈까 하는 의문이 일더라도 우직하게 씨를 뿌리고 또 뿌리면 어느 순간 갑자기 비옥한 옥토가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푸른 하늘과 같은 넓은 마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깊은 바다와 같은 포용의 마음으로 복음의 씨를 계속해서 뿌려야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믿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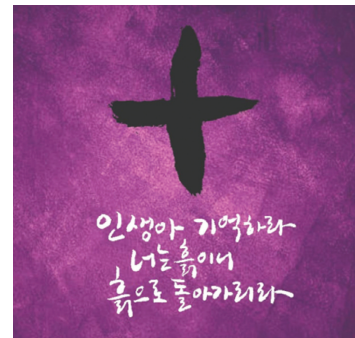


글 | 김영락 전도사(고등부)

3월 3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四旬節)이라는 한자말은, 그저 '40일간의 기간'을 뜻합니다. 부활주일 전 날까지,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순절 날짜는 매년 변합니다. 올해는 부활주일이 4월 20일이니까, 4월 19일까지가 사순절이 됩니다. 이 때에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른 때보다 더 경건하게 보냅니다. 주일을 뺀 40일이니까, 사순절의 시작은 항상 수요일이 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가리켜 '재의수요일'(Ash Wednesday)이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가 '재'와 '먼지', '흙'과 같이 아무 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마음을 가다듬는 예배를 드립니다.

사순절이 되면, 기독교 전통에서는 여러 가지 금육의 모습을 실천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금식이 있습니다. 사순절의 시작인 '재의 수요일'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 금요일'에는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톨릭 전통이 강한 곳에서는 고기를 먹지 않는 '금육'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 날, 그러니까 화요일에는, 앞으로 40일 동안 못 먹을 고기를 마구 먹는 풍습이 일부 기독교 국가에서 생겨났는데, 그것이 바로 '카니발'입니다. 또한 오락을 삼가고, 술을 안 먹기도 하고, 결혼이나 잔치 등을 이 시기에 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식과 금육은, 이웃을 돕는 구제와 선행으로 이어지는 것이 사순절의 전통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실천할지 고민해 보는 사순절 기간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금육을 실천하는 것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기 위함이니, 우리가 무언가를 실천했다는 만족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존재이며,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의미로 금육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것을 끊고, 줄일 수 있는 것을 줄이는 것도 사순절에 할 수 있는 신앙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음주나 흡연, 폭식, 게임, 잠, 과도한 일 중독, 그 밖에 우리가 끊거나 줄일 수 있는 것들은 꽤 있겠지요.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한 번 생각해 보고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사순절의 시작은, 이마에 재를 바르면서 우리가 재와 같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고백할 때, 십자가는 우리에게 비로소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찬양대



글 | 박대원 목사

올해 교회표어는 “영은, 색을 입히다”이다. 신앙의 축을 색으로 표현하면 빨강(열정, 예배), 노랑(기쁨, 봉사), 파랑(넓은 마음, 전도)이다. 3월호부터는 10회에 걸쳐 교회 봉사 중 하나인 찬양 & 찬양대를 소개한다.

1. ‘찬송’이란?

구약에서는 찬송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는 ‘바라크’이다. 뜻은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인데 왕의 존전 앞에 백성이 무릎을 꿇는 모습을 표현할 때 ‘바라크’란 단어를 사용한다.

또 다른 단어로는 ‘할릴’이 사용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할렐루야’의 강조형 동사로 ‘영광을 드러내게 하다’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종합해 보면 “왕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왕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이다.’

2. 성경 속에 등장하는 찬양대

사실 찬양대의 최초의 모습은 출애굽기 15장 1~8절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며 구원을 받은 이

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더불어 기쁨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린 사건이다.

비록 조직화 된 찬양대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개인의 찬양이 아닌 공동체의 찬양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다윗왕 때에 이르러 찬양대가 조직화 되고 그 업무가 체계화되어 정립된다.

역대상 6장과 역대상 15장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을 선별하고 그들을 관리했다. 그리고 이것이 찬양대의 본격적인 시작이다.

역대상 25장에 4천명의 레위인을 뽑아 찬양대를 조직하고 운영방침을 세워 체계성을 갖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단되고 722년 북이스라엘의 멸망, 586년 남유다의 멸망과 바



벨론 포로 70년을 지내며 그 명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이스라엘 포로 귀환 이후 다시금 찬양대의 명맥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스룹바벨의 찬양대와 느헤미야의 찬양대이다.

에스라 2장과 3장, 7장과 10장에 등장하는 스룹바벨의 찬양대는 대략 200명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느헤미야의 찬양대는 느헤미야 4장, 7장, 10장을 통해 대략 250명 정도의 찬양대로 구성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렇듯 찬양대는 이스라엘이 부국강병한 다윗의 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시금 세워져가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도 그 명맥을 유지하며 예배의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신약시대로 넘어와 초대 교회 시대에 찬양대에 대한 기록과 문헌은 많이 전해지지 않지만 당시 성인 남성과 소년이 찬양대로 자격이 있었고 이러한 전통은 중세까지 이어져 왔다.

그리고 중세카톨릭 시대에 이르러 찬양대는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여성들에게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오늘날과 같이 남녀가 함께 찬양하는 구조는 종교개혁 이후부터 가능케된다.

최초의 혼성 찬양대는 18세기에 들어서 독일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전 세계 교회에 확산되었다.

3. 찬양대에게 요구되는 자세와 책임

찬양대는 성경 속 오랜 역사 동안 예배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상황과 시대를 뛰어넘어 그 명맥을 잃지 않고 이어나간 예배를 섬기는 공동체이다.

그렇기에 예배의 섬김이로써 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모든 회중을 대표하는 자리에 세워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과 감격으로 임할뿐만 아니라 세워주신 영광의 자리를 나의 부족한 모습과 태도로 가리워서 안될 책임이 요구되는 찬양대의 자리다.

찬양대는 특별히 예배의 모든 회중이 한마음으로 모아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기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려야 한다.

자신의 실력과 경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며 영광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하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동행)



신앙의 유산 : 경흥국 은퇴장로



글 | 경흥국 은퇴장로

신앙의 정석을 걸어온 ‘정장 장로님’

오늘, 짙은 자주색 양복 자켓에 넥타이를 단정히 맨 경흥국 장로님을 만났다. “장로는 정장을 입고 다녀야 한다”는 선배 장로의 말에, 장로님은 교회에 갈 때면 꼭 정장을 차려입는다. 새벽기도회 때도 예외는 아니다. 자주색 정장에는 장로님의 삶과 신앙의 이력이 담겨있다.

올해 85살이 된 경흥국 장로님은 1941년에 황해도 웅진군에서 태어났다. 당시 38도선 이남에 속했던 웅진군은 6.25 전쟁 이후 이북지역에 속하게 됐다. 이 때문에 경 장로님은 부모님을 따라 인천으로 피난 오게 됐다.

장로님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2학년 때다. 학교 학예회에서 주인공 거지 역할을 맡았는데, 그때 함께 했던 친구를 따라 교회에 가게 됐다. 가족 중에서 장로님만 교회에 다녔다. 장로님의 어머니는 고향에서 무당이 굿할 때 대를 잡는 ‘대잡이’였다. 훗날 장로님의 전도로 어머니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를 다니는 신실한 신자가 됐다. 글도 모르던 어머니였지만 교회에서 성경도 읽고 찬송도 부르면서 글을 깨치게 되었다. 권사였던 어머니는 76살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다.

■ 섬유업 분야의 전문가가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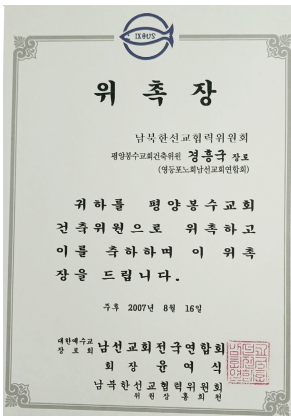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을 따라 인천으로 피난 온 장로님은 인천제일교회 부속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신

앙생활을 이어갔다. 인천 영화중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인천공업고등학교에 입학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고등학교 내신성적이 좋아 한양대 공대에 합격했지만, 공고 졸업만으로도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고 생각해 대학등록을 하지 않았다. 똑똑했던 장로님은 카멜텍스와 동아실크로 유명한 대한모방 공채에 즉시 합격했다. 이때부터 장로님은 섬유계통의 직장과의 인연을 맺게 됐다. 얼마 후 장로님은 대한모방을 나와 프리모텍스로 직장을 옮겨 양복지 디자인실에서 일했다. 모든 양복 디자인은 장로님의 손을 거쳐 갔다. 이후 프리모텍스 기획실과 프리모텍스 경남 총판 서울지사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경 장로님은 당시 ‘부산상사 경전무’로 유명세를 떨쳤다. 재주가 많았던 장로님은 공고를 졸업했지만, 섬유업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다.

■ 신앙생활은 팔복교회에서, 찬양생활은 익투스에서

인천에 정착한 경 장로님은 유명 부흥사였던 전재선 목사님이 개척한 팔복교회를 다녔다. 장로님은 중2 때부터 고1 때까지 팔복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부서기)가 되어 초등학생들의 교회 생활을 관리했다. 이때 찬양대도 했는데, 고등학생이었던 장로님은 변성기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프라노 파트를 불렀다. 지휘자 선생님이 노래를 잘한다며 장로님에게 특송을 맡기기도 했다. 장로님은 노래뿐 아니라 축구, 배구, 테니스 등 운동도 잘해서 전국대회에 나갈 정도로 팔방미남이

었다. 특히 노래는 장로님의 평생 동반자가 되었다.



음악에 재능이 있었던 장로님은 교회 찬양대 뿐 아니라, 익투스 합창단 단원으로도 활동했다. 장로님은 익투스 6대 단장을 역임했다. 1994년에 창단된 익투스 합창단은 1년은 국내에서, 1년은 해외에서 정기연주회를 했다. 장로님은 해외 정기연주회를 통해 여러 나라를 방문할 수 있었다.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북한 평양 봉수교회 헌당 예배 때 찬양한 일이다. 장로님은 평양 외에도 금강산과 백두산, 묘향산 등 북한 여러 곳을 다녔다. 1989년에는 영은실내악단 창단을 위해서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교회 갈렙합창단의 초대 단장을 역임했으며, 지금까지 테너로 활동하고 있다.

■ 새벽기도회로 만난 영은교회

경 장로님이 영은교회에 다니게 된 것은, 대한모방

에서 일할 때다. 인천 팔복교회의 교인이었던 장로님은 주일예배는 팔복교회에서 드렸지만, 새벽예배는 영은교회에서 드렸다. 영은교회는 대한모방의 기독교 직장인들이 많이 출석하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새벽기도회에 빠지지 않았던 경 장로님은 직장에서 가까운 영은교회에서 새벽예배를 드렸다. 지금도 장로님은 매일 새벽예배를 드린다. 새벽기도 때마다 117명의 해외 선교사들과 우리 교회 목사님들, 은퇴장로 25명, 은퇴 안수집사 23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기도한다.

새벽예배만 우리 교회에서 드리던 어느 날 이은혜 전도사님이 장로님에게 교회학교 교사도, 찬양대도 영은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권유했다. 그때 영은교회에 등록하게 됐다. 박조준 목사님이 담임하던 때였다. 장로님은 교회에 등록하면서 김창경 장로가 지휘하는 찬양대에서 봉사했다. 그리고 중등부 교사가 되어 학생들과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으며 공과공부를 하기도 했다. 장로님은 1991년에 집사 안수를 받았고, 2000년 1월에 장로가 됐다. 찬양대대장 3년, 소년부 부장 4년, 노인학교(현, 늘푸른학교) 교감 4년, 총무부장 3년, 당회 서기 3년 등 교회의 다양한 부서에서 헌신했다. 영등포 남선교회 연합회 회장과 전국연합회 음영부 부장 등 대외 활동도 많이 했다.

장로님에게 교회 생활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2008년에 거행된 '3천 예배자 초청 총동원주일'이다. 장로님은 그 초청 예배를 한 번 더 드렸다면 3천 예배자가 정착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부인 이종심 권사님과는 1967년에 대한모방에서 만나, 전재선 목사님 주례로 결혼했다. 장로님은 오늘도 성경통독과 새벽기도를 하며 신앙의 정석을 걷고 있다. 

〈인터뷰 · 글 : 김명희 기자〉



글 | 안영순 권사(2024년 권사회 회장)

선교지에서 온 감사글

권사회가 2024년에 후원했던 선교지에서 보내온 감사의 글을 성도님과 공유합니다.

♥ 회장 권사님과 모든 회원님들께!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늘 영육이 강건한 은혜가 충만한 새해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늘 기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보내 주신 귀한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보는 그곳에 귀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저희는 영은교회의 기도와 사랑에 힘입어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필리핀 민도로에서 신정식 김행자 선교사 감사 인사드립니다.

♥ 최동익, 방영희 선교사입니다.



예배 후 성도 집에서 성찬 교제

늘 기도해주시고 사랑과 마음으로 선교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영은교회와 권사회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에 저희도 은혜 가운데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보내 주신 현금 잘 사용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복되고 능하게 쓰임받는 권사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랑하는 영은 교회 권사님들께

안녕하세요? 2024년 새해를 맞은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2025년 1월이 반이나 지났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안도 교회와 이웃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상황이 힘든 가운데서도 저희를 위해 기도와 후원을 해주셔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현금해 주셔서 비쉬켄교회와 카라콜교회에 나눌 수 있었습니다. 2025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권사님들과 가정과 자녀분들의 일과 사역 위에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키르기스탄 전우 현&박영란 선교사가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글 | 송도숙 권사

제65회 여전도협의회 정기총회를 마치며



여전도협의회 신규 임원교체(좌측 구임원, 우측 신임원)

영은교회의 여전도회가 65회의 역사 속에 지금까지 여전도회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해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소망으로 여전도협의회 정기총회를 1월 10일(금)에 본당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여전도회를 사랑하는 회원들이 103명 참석하였습니다. 1부 개회예배는 예배부장 김우권 장로님의 기도와 이승구 담임목사님의 “여전도회, 구원받은 백성들의 축제”(에스라 6:19-22)라는 제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여전도회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의 공동체임을 깨닫고, 정결함으로 전도의 사명을 위해 즐겁게 선교와 봉사로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부 회의에서는 영은교회의 2025년 표어 “영은, 색

을 입히다”를 모두 다 함께 제창하면서 지난 기수의 1년간의 선교와 봉사의 결산을 보고하는 시간과 신규회장들의 진급자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기수 협의회 회장인 송도숙 권사는 이임사에서 영은의 여전도회가 오랜 역사 속에 선한 열매를 맺으며 여전도회를 이끌어 온 것을 바탕으로 더욱더 모성애적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교회의 원동력이 될 것을 권면했습니다. 또한, 새롭게 출발하는 여전도회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새 세대를 격려하고 잘 이끌어 주시며 여성들에게 이루고자 하는 뜻을 성취해 나가길 바란다고, 새 기수의 협의회 회장 박정희 권사에게 회장직을 이임하였습니다.

▶ 2025년도 여전도회 협의회 임원명단

회장	박정희 권사	부회장	강경옥 권사
총무	이상임 집사		
회계	허진숙 집사	부회계	신예나 집사
서기	동은선 집사	부서기	권민애 집사



「영은 그랜드 투어」, 교회에 색을 입히다

글 | 교육문화부

그랜드 투어(Grand Tour)는 17세기 중반부터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 상류층 귀족 자제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프랑스나 이탈리아를 돌아보며 문물을 익히는 ‘교육 여행’을 일컫는 말이다. 17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어 18세기 전 유럽에서 유행한 그랜드 투어는 유럽 최고 지성과 예술가를 탄생시키며 근대 유럽의 주춧돌이 되었다.

「영은 그랜드 투어」는 영은교회 성도들이 기독교의 역사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신앙생활을 심화시키는 ‘신앙교육 여행’ 프로그램이다. 성도들은 성경의 땅인

이스라엘과 초대교회의 역사 현장들, 그리고 유럽의 종교개혁도시들을 탐방하며,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지평을 넓히게 된다.

2025년부터는 올해 신설된 교육문화부(부장 : 송현울 장로) 주관으로 「영은 그랜드 투어」가 3년 주기로 진행된다. 첫해는 「한국교회역사 그랜드 투어」가, 두 번째 해는 유럽의 「종교개혁 그랜드 투어」가, 세 번째 해는 성경의 땅인 「예루살렘 그랜드 투어」가 진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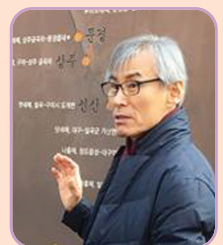
■ 영은 그랜드 투어 3년 주기 예상 일정표

연도	기간	프로그램	내용
1차	2025년 8월	한국교회역사 그랜드 투어	■ 국내, 교회 역사탐방
2차	2026년 7월	종교개혁 그랜드 투어 : 독일, 스위스, 프랑스	■ 루터, 츠빙글리, 칼뱅의 발자취를 따라서
3차	2027년 7월	예루살렘 그랜드 투어	■ 성경의 땅을 찾아서 (이스라엘, 요르단, 튀르키예, 그리스, 이집트 등)

■ 2025년 한국교회역사 그랜드 투어 안내

- 일시 : 2025. 8. 22(금) ~ 23(토) (1박 2일)
- 가이드 : 손산문 목사(영천 자천교회, 영남신대 겸임교수)
- 신청 : 3월 9일~23일까지(교회 1층 로비)
- 탐방지 : 대구동산병원 일대(구, 대구선교부), 영천자천교회, 청송화목교회,

안동교회, 안동광성교회, 안동선교부 선교사 묘역, 하회교회 및 하회마을 등.



가이드 | 손산문 목사

“이 시대에 전도라는 투박한 방법이 과연 가능할까?” - 청년부 부산 전도여행 -



글 | 강현우 (청년부)

2025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12명의 청년과 김지혜, 주세훈 교사 그리고 김민식, 이찬양 목사님이 전도여행팀을 이루어 부산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傳道)에 올랐다. “영은, 색을 입히다”라는 올해의 교회표어 아래, 전도에 대한 청년부 담당 목사님들의 고민과 도전이 담긴 프로그램이었다. 전도여행의 목표는 분명했다. “복음을 알고 내가 먼저 믿으며, 그 복음을 내 입술로 말하자”. 이 목표를 위해 12명의 청년은 전도폭발 과정을 수료한 청년들의 도움을 통해 4주간 열심히 복음 제시문을 암기하였다. 특별히 마지막 교육시간에는 전도 ‘일타강사’ 연상훈 집사님과 서상희 집사님께서 전도 노하우를 전해주시고, 노방전도도 함께해주시며 뜨겁게 격려해주셨다.



부산 광안리에서 버스킹으로 찬양하는 전도여행팀

2박 3일간 강동시장, 서면 등 부산 각지에서 2~3명이 조를 이뤄 복음을 전하였으며, 저녁 시간에는 버스

킹을 통해 해운대와 광안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후, 나눔 시간에는 각 조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계획하심에 대한 간증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교회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 홀로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 복음 제시를 듣고 다시 마음이 뜨거워져 교회에 나가겠다고 결심하신 일, 목회자 아들을 두었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았던 할머니께서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기쁨에 식사대접을 해주신 일 등, 하나님께서 준비해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다.

‘이 시대에 전도라는 투박한 방법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가졌었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기에 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돌아보면 2박 3일의 시간을 통해 세상의 근심 걱정 없이 오직 복음으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를 짧게나마 체험한 것 같다. 전도여행을 넘어 각자 삶의 자리에서도 전도자의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동행**



흰여울마을 경로당에서 복음제시 후 기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 청년부 부산 전도여행 -



글 | 최안진 (청년부)

이번 전도여행은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부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전도는 그저 막연한 두려움과 어려움이었고 전도를 삶 속에서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때에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청년부 전도여행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4주간의 훈련기간 동안 복음 제시 개요와 예화를 암기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으나 팀원들과 함께하는 과정 자체가 은혜였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4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부산으로 향하게 되었고 부산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순간마다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2박 3일 동안 강통시장, 국제시장, 해운대, 영도 지역에서 노방전도를 하였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전도폭발 훈련자이신 연상훈 안수집사님의 "우리는 씨앗을 심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분들이 많았고 거절을 당해도 씨앗을 심는다는 기쁜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노방전도를 통해 복권방 아주머니, 해운대 해수욕장 아주머니, 해운대 풍선 노점상 아주머니, 흰여울마을에서 만난 어르신에게 복음 제시와 결신 기도까지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순간마다 은혜를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목격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도여행을 통해 제 믿음을 다시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어진 자리에서 기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동행**



부산행 승차를 위해 서울역에 모인 전도팀



베이스 캠프였던 부산진교회, 영은전도팀

아동부 찬양학교



글 | 최유하 (소년부 6학년)

이번 2월 8일(토) 찬양학교 때는 처음으로 조장을 맡아서 다른 때보다 더 기대가 되었다. 그래서 들뜬 마음으로 나와 찬양학교에 제일 먼저 도착했다. 이름표를 붙인 뒤, 찬양과 율동을 했다. 그리고 정희수 전도사님의 설교가 있었다. 설교에서 노래 뿐만 아니라 악기와 마음으로도 찬양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일 인상 깊었다. 그 다음에는 율동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하늘 소망 담은 꿈, 두근두근 예배 등을 배웠다. 그 중에서 나는 하늘 소망 담은 꿈이 힘찬 것 같아서 좋았다. 그리고 김찬영 전도사님의 특강이 있었다. 특강에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중 방법 하나하나를 성경책 속에서 찾는 게 재미있었다.

그 다음에는 홍승주 선생님께서 발성을 가르쳐 주셨다. 처음에는 발성을 어떻게 하는건지도 몰랐고, 잘하지도 못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홍승주 선생님께서 잘 가르쳐 주셔서 지금은 조금이나마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찬양학교에서 제일 재미있는 레크레이션 시간이었다. 윤성호 선생님께서 재미있는 게임들을 준비해 주셨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물병 세우기였다. 왜냐하면 우리 조가 많이 세웠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물병 세우기를 많이 해봤지만 이번에 제일 많이 세운 것 같아 기뻐다. 레크레이션이 끝나고 조별 시간이 있었다. 조별 시간에는 조 애들과 함께 율동 연습을 했다. 우리 조의 율동은 하늘 소망 담은 꿈이었다.

그다음에는 대망의 조별 발표회 시간이었다. 나는 점수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율동을 최대한 열심히 추었다. 그리고 조 애들도 열심히 춰 주어서 우리 조가 일등을

했다. 일등을 한 것도 처음이었고, 무엇보다도 내가 조장인 조가 일등을 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았다. 일등 상품은 제일 마지막에 다른 조에 있는 큰 간식들을 바꾸는 것이었다. 기분이 정말 좋았다. 우리 조가 선택한 간식은 진라면이었다. 조별 발표회가 끝나고 황금성 전도사님의 결단의 시간이 있었다. 이 때는 마음이 경건해졌다. 많은 기도를 한 뒤,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조 애들과 간식을 나누었다. 이번 찬양학교는 정말 재미있었다. 다음 찬양학교 때는 더 많은 친구들이 와서 재미있는 경험이 되고,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부릉부릉 예수님을 따라가요 - 영아부 겨울성경학교 -



글 | 이상화 집사
(영아부 김리한 가족)

살림!

안녕하세요. 저는 영아부 김리한 엄마입니다. 자모실에서 기어다니며 예배드리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리한이가 영아부 형님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졸린 눈을 비벼가며 예배도 더 의젓하게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겨울성경학교는 ‘부릉부릉 예수님을 따라가요’라는 주제로 성경학교가 열렸습니다. 겨울성경학교는 처음이라 기대하며 기도하고 참석했습니다. 찬양과 율동도 신나게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다양한 길을 만들어 아이들이 직접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활동과, 예수님과 함께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것 같이 뽕튀기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표현해보는 활동을 하면서 말씀을 더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

주제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을 하였는데도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 삶에도 항상 예상치 못한 때에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항상 저의 상황에 맞게

때를 따라 인도하셨습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원망과 불평의 기도가 쏟아져 나왔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셨구나’라며 감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쉽게 전해주시려고 연극을 비롯해 다양하게 준비 해주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모님과 아이들 모두 즐거운 특별활동



영아부 단체사진

기도의 히어로 - 유아부 겨울성경학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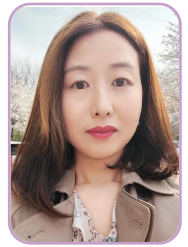
글 | 이정섭 교사

나는 뽕이다. 나이 수만큼 의심의 수가 늘어가는 뽕이다. 1년에 1번 진행되는 겨울성경학교가 유아부 친구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긴 시간 준비할 필요가 있나 의심이 드는 것은 뽕이에겐 당연한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뽕이는 틀렸다. 지금부터 뽕이가 직접 보고 경험한 영은 유아부 겨울성경학교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2025년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유아부실에서 2025년 유아부 겨울성경학교가 진행되었다. “기도의 히어로”라는 주제로 기도왕관 만들기, 기도 십자가 만들기, 대그룹 활동(공동기도) 등의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었고, 히어로 임명식도 열렸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세심하게 준비된 다양한 환영 전시물과 성경학교 중에 진행된 반별 공과와 활동 내용을 보면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얼마나 정성들여서 준비했는지를 알 수 있었고,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 뽕이는 부끄럽고 죄송스러웠다. 성경학교가 진행되는 동안 유아부 친구들을 사랑과 열정으로 가르치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보았고, 즐겁게 활동하고 신나하는 유아부 친구들을 보았다. 선생님들이 준비한 활동을 집중하여 즐기고, 자그마한 손으로 나뭇잎처럼 기도하는 유아부 친구들을 보고, 선생님들이 정성들여 준비한 것들이 절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모습을 직접 보고 경험한 뽕이가 변했다. 뽕이의 의심을 잠식했다. 영은 유아부에는 있다. 혹시나 소외된 친구가 있나 안절부절

바쁘게 둘러보시는 전도사님, 자체발광 카리스마로 유아부를 이끄시는 알고 보면 마음 어린 부장님, 유아부 모든 세대 간의 가교 역할을 하시는 유아부의 심장 차장님, 보이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세심하게 챙기시는 총무님,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이 아니라 진실된 행동과 기도로 보여주는 유아부의 영웅, 선생님들이 계신다. 뽕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유아부 선생님들을 ‘영은 영웅 티쳐스’라 부르고 싶다. 그리고, 선생님들께 어렵פות하게 배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세상에 전할 ‘기도의 히어로’로 다시 태어난 유아부 친구들이 있다. 뽕이는 이제 믿음으로 외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동~ 영은 영웅 티쳐스! 아멘하며 출동~ 영은 기도의 히어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기도로 하나되는 유아부 성경학교에서 뽕이가 어지러운 세상의 길을 찾았다! 



유아부 겨울성경학교 단체사진



글 | 김혜령 교사

“바르게 믿어요” - 유치부 겨울성경학교 -

꽁꽁 얼어붙은 추위를 따뜻하게 녹여줄 2025년 유치부 겨울성경학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성경학교일까? 설렘을 갖고 기도로 준비했었고 은혜 속에서 잘 마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치부에서는 “바르게 믿어요”라는 주제로 2월 15일~16일까지 이틀간 겨울성경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참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유치부 아이들과 교사 모두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날은 오프닝 극으로 시작하여 여는 예배와 공과, ‘쥐가 된 왕자’ 이야기와 ‘콩!콩! 경외해요’ 게임 활동을 통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후에는 공과와 ‘경외하며 뿡!뿡! 오감활동, ‘고치시는 예수님’ 음률활동을 통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체육관에 모여 큰 공 굴리기, 실내 썰매, 줄다리기 등 대그룹활동을 하며 신나게, 재미있게 성경학교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둘째 날은 예배와 클로징극,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 설교를 통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

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8)

지금은 유치부 친구들 믿음이 겨자씨처럼 작지만 바른 신앙 안에서 잘 자라서 믿음의 큰 나무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공과활동 하는 모습



영은 유치부 단체사진



글 | 안소울 어린이

하나님과 우리의 동행 - 소년부 겨울성경학교 -

이번에 소년부에서 겨울성경학교를 한다고 해서 참여하게 되었다.

“우리는 로딩(Lording)중!”이라는 주제로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3일에 걸쳐 진행된 겨울성경학교는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기간이었다.

이번 겨울성경학교에서는 주로 야곱의 이야기를 배웠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을 것 같다. 성경학교 기간동안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가장 재미있었던 Top 3는 성경공부, 지덕체 게임, 친해지길 바라였다.

성경공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여서 좋았고, 나머지는 친구들과 친해지는 기회여서 좋았다.

성경학교를 통해 친구도 많이 사귀고 하나님도 더 잘 알게 되어서 일석이조 같았다.

찬양시간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더 친해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여서 좋았다.

전도사님이 전해 주신 야곱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을 신뢰한 야곱과 같이 우리도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

뢰해야 한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다.

이번 겨울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동행’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이번 성경학교에 못 온 친구들도, 성경학교는 좋은 추억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여서 다음 여름성경학교에는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번 겨울성경학교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친구들이 가까워지는 최고의 방법’이다. **동행**



소년부 단체사진



글 | 서아영 학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 중등부 겨울수련회 -

이번 수련회는 2월 2일부터 4일까지 가평 오륜빌리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주제는 “기선제압! 기죽지 말고 선포하라! 제가 앞장서겠습니다!”였습니다.

수련회에 와서 MBTI 게임으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저녁을 먹은 후에 첫 집회시간이 되었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날 설교의 주제 말씀은 요나 1장 6절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요나를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갑자기 평소 나의 모습이 생각나 부끄러워졌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죄를 짓지 않겠다고 기도하면서도 계속 죄를 지어왔습니다. 일요일에는 교회에 열심히 나가지만, 월요일이 되면 행동이 원래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중간중간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께서 제게 해주시는 말씀 같아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조금 더 일찍 나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 찬양을 불렀습니다. 전도사님의 말씀 후에는 기도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 속에 오시길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계속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와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회 중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는 손에서 피가 날 때까지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제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계속 무시했던 저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찾아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회가 끝난 후에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놀 생각으로 수련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수련회의 중심은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모든 활동을 준비해 주신 선생님과 전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글 | 김하영 학생

수련회는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성장시킬 기회 - 고등부 겨울수련회 -

2월 9일부터 11일까지 가평 오륜 비전빌리지에서 진행된 고등부 겨울 수련회 <RGB>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다. RGB는 빛의 3원색으로 빨강(Red), 초록(Green), 파랑(Blue)의 영어 약자이다. 이 세 가지 빛이 모이면 순수한 하얀 빛이 되듯이, 빛의 자녀 된 우리가 주님께 부여받은 색을 발견하고 서로 함께 모여 그 빛을 세상에 밝게 비추며 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처음에는 다소 어렵게 느껴졌던 주제였지만, 학생 임원들과 함께한 레크리에이션, 선생님들과 함께 즐긴 공동체 프로그램, 작곡가 교수님과 함께 만든 고등부 주제곡과 표지 제작, 그리고 고등부 수련회의 정체성인 뜨거운 집회와 자유키도회를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주제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다. 특히 둘째 날 저녁 집회는 전도사님께서 세 명의 성경 속 인물을 통해 믿음의 모습을 나누어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한 노아,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에 고민과 두려움 속에서도 결국 순종한 아브라함, 그리고 고기를 잡지 못해 배를 철수하던 중 예수님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마지못해 따랐던 베드로까지. 이 세 사람의 믿음은 형태는 달랐지만,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반

응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나는 설교를 들으며 나의 믿음은 어떤 형태일지 고민해보았다. 셋 중 가장 약해 보이는 베드로의 믿음조차 내 믿음보다는 커 보였기 때문이다. 고등학생이 된 후, 학교 기독 동아리에서 성탄절을 맞아 전체 학급에 쿠키를 나눠 주었을 때, 내가 전도의 목적으로 동아리에 초대된 비크리스천 친구 다섯 명이 나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동아리를 홍보하는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꼈다. 크리스천인 내가 주저하는 모습이 스스로도 답답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아나 아브라함만큼, 아니 베드로만큼의 믿음은 아닐지라도, 그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믿음도 내겐 귀하고, 네 연합함도 결코 하찮지 않다.”라는 위로의 응답을 주셨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학업 때문에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진다. 그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참 아쉽다. 수련회에서 만나는 하나님,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성장시킬 기회, 그리고 친구들과의 소중한 추억

등 얻을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는 학생이 있다면, 꼭 다음 수련회에서 함께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인도하

인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글 | 신국진 · 안윤정 선교사 가정

선교사 홀로 이 길을 걷지 않고 마음을 모아주셔서 황폐한 이 땅에 소망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쓰러지고 파괴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 복음의 길들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간증과 기적이 동역자님들의 기도의 응답이라 믿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며 이 땅에 가득한 기쁨의 소식들을 나눕니다.

▶ 사역 : 디모데 펠로십

1) 라니아교회 첫 예배

(2024.12.22)

2010년 시작한 라니아 교회에 오랫동안 기다리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지난해 5월 부지를 구입하고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모든 사역자들이 땀 흘린 결과이고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후원의 열매입니다. 감사드립니다.



2) 전교인 가을 수련회

(10월)

지난 10월 9~13일, 인도 대명절 뿌자 기간에 모든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며 새롭게 세워지는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3) 새로운 사역지 : 오릿사 & 살가리아

지난 2020년 6월, 살가리아(웨스트 벵갈 주)와 오릿사 주에서 사역하시던 콜카타의 선교사님 가정이 철수하셨습니다. 인도의 숨막히는 비자 정책과 코로나 여파로 사역지 변경(태국)을 부득이 하게 되셨습니다.

선교사님 철수 이후 사역지의 목회자들과 교우들은 겨우 교회를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지난 10월 철수하신 선교사님 부부를 우연히 만나게 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희 부부에게 본인의 사역지를 이양해야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오렛사와 살가리아 사역에 대한 요청을 하셨습니다. 지난 11월 초에 선교사님과 같이 사역지를 다녀왔습니다.

살가리아 미션은 지도자 트리샤, 샤몰리 부부를 포함해 11 가정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1개의 센터와 4개의 교회가 세워져 복음을 전하고 목회자들을 재교육하고 제자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가정에는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사역하게 하심을 느끼고, 선교의 문이 닫히기 전 더 열정을 다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2025년 사역지 이양하는 과정과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새로운 펠로십이 잘 세워지고 목회자들과 함께 복음 사역을 더 마음과 최선을 다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사역 : 자다폴 대학교

대학교 (한국어) 수업도 한 해가 마무리 되어 갑니다.

8명의 영혼들을 교회 밖에서 만나는 것은 설레는 일이었는데 시간이 참 빠릅니다.

한해 동안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초등부 정희수 전도사 부임인사



정희수 전도사 (초등부)

샬롬! 영은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영은교회 초등부 정희수 전도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영은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영은교회에 부임하게 되어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영은교회에 오기 전부터 영은교회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아주 좋은 교회라는 이야기를 여러 사람을 통해 들었습니다. 꼭 영은교회에 오고 싶었습니다. 초등부 전도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영은교회 성도님들과 한 가족이 되어 기쁘고 행복합니다.

초등부에서 말씀을 전한 지 벌써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초등부는 사랑스럽고 귀여운 3학년, 4학년 어린이들이 가득한 공동체입니다. 또한 규

모 있고 질서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는 부서입니다. 초등부 선생님들의 헌신과 봉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기쁨으로 초등부를 섬기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통해 사랑과 섬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승구 담임목사님과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모든 성도님들께 잘 배우겠습니다. 초등부 어린이들이 '축복의 통로'로 자라도록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은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은교회 모든 목사님과 전도사님,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표기도, 이렇게 하세요



글 | 박대원 목사

대표기도는 예배 중 모인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렇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작성하고 모든 성도의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 기억해야 할 몇 가지 항목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다른 이에게 들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 예배의 흐름을 끊어서는 안 된다. 기도는 모든 회중이 눈을 감고 있기에 정적의 시간이 훨씬 더 길게 느껴진다. 그렇기에 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미리 기도문을 펴놓고 준비해서 예배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셋째, 충분한 기도 준비가 있어야 한다. 기도문을 작성한 이후 기도의 내용이 입에 익숙하도록 여러번 읽으며 준비한다.

넷째, 대표 기도는 길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 좋다. 개인적인 기도라면 장시간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표기도는 예배의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방해되지 않도록 적정 분량을 준비해야 한다.

다섯째, 성경 구절을 정확한 인용이 좋다. 기도 가운

데 성경 구절을 인용할 경우 정확하게 인용하는 것이 좋다(기도 서두에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않는다).

여섯째, 기도자의 목소리는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좋다. 대표기도 시간이 되면 평소의 목소리와 다르게 하지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듣기 거부할 뿐이다. 가장 자연스러운 목소리가 가장 은혜롭다.

일곱째, 중언부언해서는 안 된다. 앞부분에서 기도한 내용을 뒷부분에서 다시 반복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여덟째, 기도로 자기주장, 정치색깔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대표기도는 모든 회중의 마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에 특별히 개인적으로 견해의 차이가 있는 정치적 성향이나 견해를 기도문에 포함시키는 것은 듣는 이에게도 마음도 닫히게 한다.

아홉째, 감동을 주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대표로 기도하며 은혜와 감격으로 눈물이 흐르게 될 때도 있다. 하지만 회중을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감정을 주입하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가장 대표적인 현대판 바리새인의 외식이다.

열째, 대표기도는 교회의 비전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좋다. 성도들 역시 다시 한 번 교회의 비전을 마음에 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정말 기적인가

글 | 이숙경 기자

오병이어(五餅二魚)의 이야기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 만큼 유명하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여성과 어린아이를 제외하고도 오천 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열두 바구니가 남았다는 이야기인데, 당시에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였으면 마태복음(14장 13~21절), 마가복음(6장 30~44절), 누가복음(9장 10~17절), 요한복음(6장 1~15절)의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을 정도이다.

사실 이 이야기는 오디오도 없던 시절에 예수님의 말씀 한 번 들겠다고 여성과 어린아이를 제외하고도 무려 5천명이 모였다는 것도, 그 5천명을 계수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이야기이긴 하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세상 사람들이 아는 더 큰 ‘기적’이 있다. 어떻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느냐 하는 것이다.

어린 시절,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텅 비어 있는 바구니에서 요술처럼 음식들이 뽕뽕 생겨나는 것을 상상하곤 했다. 실제로 어릴 때 보았던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도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런데 어느날, 지독하게 이성적인 “T”인 친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름 추론해보았다고 한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가면서 한 명도 도시락을 안 싸가지고 가진 않았을 거잖아? 아마 제자들에게 나눔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비어 버린 바구니에 자기 것을 나눠준 사람도 있었을 거야. 그런데 그런 경우엔 나눠주는 양보다 기부 받는 양이 더 많아지더라고.”

그 시절에 살아본 적이 없으니, 나로서는 어떤 것이

진실인 지는 알 수 없다. 바구니에서 음식이 뽕뽕 솟아났을지, 빈 바구니를 계속 채워주는 나눔의 손길이 끊임없이 있었을지. 그렇다면 전자는 기적이지만, 후자는 기적이 아닌가? 글썄. 나는 후자야말로 진정한 기적이 아닌가 생각한다.

오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을 보고, 듣고, “아, 좋은 배움이였다~. ‘하고 그냥 돌아간다면, 그건 기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생겨난 믿음과 선함의 싹이, 내 것으로 내 배만 채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남을 위해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빈 바구니에 먹을 것을 나눠주게 만들어주지는 않았을까.”

물론 이 모든 것은 내 친구의 추론이고 나 혼자만의 상상이다. 어린 시절, 바구니에서 음식이 뽕뽕 생겨나는 것을 상상했던 것처럼 말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다. 응, 그래. 앞으로 열심히 사랑하자, 하고 마음으로 결심만 하고 끝나는 나날이 얼마나 많았던가. 눈에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아무것도 없는 바구니에서 음식이 마술처럼 뽕뽕 솟아나는 것.

그러나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우리가 행해야 할 진짜 사랑은 빈 바구니에 내 것을 나누어주는 ‘행동’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병이어’가 아니라 ‘열두 바구니’에 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모두가 배불리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그리고 기왕이면, 가장 처음 제 것을 나눠주기로 결심한 어린아이가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기적이다. 



남녀선교연합3·1절 기념예배 만세삼창
사진 : 허영준 기자

▶ 교회를 섬기는 분들

원 로 목 사 허남기
 담 임 목 사 이승구
 부 목 사 최광주 이준희 이예리아 박대원 정성훈
 한진구 신요한 김민식 이찬양
 교 육 목 사 전수현
 전 도 사 장미애 김영락 김찬영
 교 육 전 도 사 나진희 박선민 황금성 황예찬 손예지
 정희수
 파 송 선교사 구용회 백현이
 협 동 목 사 소병찬 김규리

▶ 영은교회 찾아오시는 길



▶ 영은교회 예배시간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본 당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00	
	4부 오후 1:30	
오후예배	오후 3:30	본 당
수요일예배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30	본 당
금요심야기도회	금요일 오후 8:30	본 당
영아부	주일 오전 11:00	1층 영아부실
유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2층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2층
유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소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꿈자람부	주일 오후 1:30	비전센터 2층
중등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고등부	주일 오전 9:0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청년부	주일 오후 1:3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대한예수교장로회 영은교회

www.youngeun.or.kr

월간동행 e-mail : yemagazine@naver.com